

대두 선물가격, 더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미국 농장을 위협하며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9.06.12)	전일대비	전월평균 ('19.05)	2018 평균
밀	193.36	▲1.6%	170	183
옥수수	169.28	▲0.5%	151	146
대두	322.60	▲2.2%	307	344

단위 : US\$/톤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 7월, 옥수수 : 7월, 대두 : 7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대두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6%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옥수수와 대두 시장에서의 상승으로 인한 유출 지원으로 강세를 보였다. 옥수수와 대두도 파종을 지연시키는 습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등했다. Midwest Market Solutions의 Brian Hoops 사장은 "옥수수가 계속해서 반등한다면 밀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무역업자들은 흑해 지역의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밀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밀 선물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기상청 Maxar는 더위와 건조함이 앞으로 10일간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밀 식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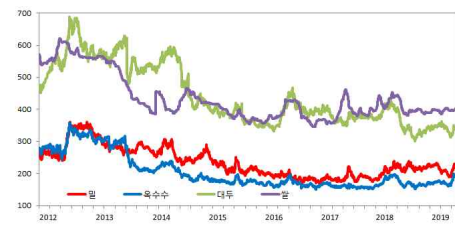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에 비가 더 내리면 경작 면적과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1주일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Commodity Weather Group은 이번 주말 중서부와 동부의 습한 날씨가 "파종 작업을 중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농부들은 올 봄 습한 날씨 때문에 파종 지연에 시달려 왔다. 통상적으로 옥수수 파종작업은 시즌 중 이 시점까지 완료되지만, 미 농무부는 월요일에 83%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미국 농무부가 화요일 발표된 월간 농작물 보고서에서 비로 인해 옥수수 재배 면적을 더 낮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2%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비로 인해 예정보다 늦어지는 파종작업을 더 지연시키며 1주일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부들은 습기가 많은 날씨로 어려움을 겪어 옥수수를 심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좋아지면 옥수수를 대두로 바꿀 수 있는데, 대두는 대개 옥수수 다음에 심는다. Commodity Weather Group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를 심고 다시 심고 있는 농부들은 비가 다시 내리는 바람에 "아직도 끝내기가 힘들다" 고 말했다. 그러나 중서부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대두 에이커도 경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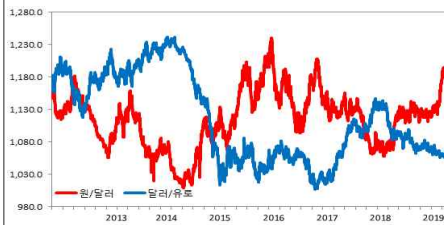
관련동향

- 곱프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지속적인 물류 병목현상으로 현물 수요가 감소했으나, 확고한 CIF 바지선 베이스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 밀 또한 대체로 변하지 않음.
- 12일 국제유가는 지난 주 미 원유재고 증가, 헤지펀드 등의 원유 선물 순매수 포지션 지속 감소,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 전망,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고, 하반기 감소 연장 가능성 고조 등은 하락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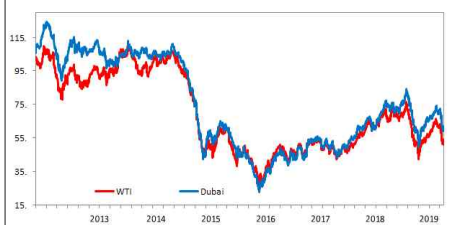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27	▲1.8%	환율	원/달러	1,1181.7	▼0.2%
	옥수수	196	▲3.2%		달러/유로	1,1328	▲0.1%
	대두	340	▲0.3%	국제유가	WTI	51.14	▼4.0%
	쌀	403	-		Dubai	59.90	▼2.3%

주 1) 밀(US SRW Gult), 옥수수(US 3Y Gult), 대두(US Gult), 쌀(Thailand 100% Grande B), WTI(근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9.06.11(수출가격), '19.06.12(환율), '19.06.12(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